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백청강¹, 김광환², 구진희^{3*}

¹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²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³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The Effect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of Well-Aging Instructors on Educational Competency

Cheong Kang Baek¹, Kwang Hwan Kim², Jin-Hee Ku^{3*}

¹Wellodying Convergence Lab,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³Division of Software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웰에이징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 및 웰에이징 분야 교육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웰에이징 교육분야 전문가 393명 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6일에 걸쳐 한국갤럽의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은 SPSS 2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상관분석,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웰에이징 교수자의 연령, 교육경력에 따른 자기 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경력이 증가할수록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성찰지능 하위영역인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반성 순으로 전체 교육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웰에이징 교수자 선발과 역량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strengthen well-aging instructors' professionalism an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he field of well-aging educ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aging instructors'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competence.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393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well-aging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Gallup Korea from November 14, 2022, to January 16, 2023. Frequency analyses, reliability analyses, independent sample t-tests, one-way ANOVA, post hoc analyses,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Statistics 29.0.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n the differences i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competence according to the age and educational experience of well-aging instructors confirm that the level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competency enhance as their age and educational experience increase.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corded by gender.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well-aging instructors' intrapersonal intelligence on educational competency, it was confirmed that all sub-factor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It was also found that the sub-domains, such as self-planning, self-control and utilizing, and self-refle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 overall educational competency in the or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electing well-aging instructors and diagnosing their competence in the future.

Keywords : Wellbe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rofessional Competence, Educational Experience, Individual Variable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Ku(Mokwon Univ.)

email: jhku2020@gmail.com

Received April 6, 2023

Revised May 4,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웰에이징은 1987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노년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대중들에게 주목받게 되었다[1]. 이처럼 웰에이징은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의 웰빙(well being)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2-4].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웰에이징 관점에서 건강한 노화를 “웰빙(wellbeing)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5].

OECD는 2011년부터 “How’s Life?”발간을 시작으로 웰빙에 대한 전체적인 국제비교 통계를 시작 하였다. 최근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에 따르면 삶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관계 단절, 정서적 절망을 꼽고 있다[6].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개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 웰에이징 분야를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자원인 교수자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은 웰에이징 학습자의 교육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장능력과 교육 전문성을 연구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특히 교육은 구성원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교육 영역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현재 교육수요자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 기회의 확충과 충분한 교육 인력, 교육재정이 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7].

현재 국내 웰에이징 교육은 전반적으로 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노인학, 사회복지학, 의학, 보건학 등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융합학문으로 각광 받고 있다[8-11]. 이 과정에서 웰에이징 교육대상, 웰에이징 정의, 웰에이징 교육의 범위, 웰에이징 교육 방법, 웰에이징 교수자 전문성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웰에이징 교육분야에 대한 더욱 명확한 학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학습자가 자신과 타인 및 세계시민 구성원 전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영역의 다양성 확대

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장면에 웰빙, 웰에이징 영역의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자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성에 대한 교육적 제도가 수반되어함을 시사한다[12].

자기성찰지능은 교수자의 성찰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구인으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설명해주는 일반 지능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인성과 심리적 특성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자기이해지능, 개인내 지능이라고도 불리며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서를 충분히 수용하고 조절함으로써 미래를 계획하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타인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대인관계 지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Gardner[13]의 다중지능 8개의 지능 요소 중 7번째 하위 영역인 개인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이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성격,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한 행동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목표, 강점과 약점 등을 잘 파악하여 인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다[13,14].

교육역량은 교수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동시에 수업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5]. 교육역량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가 반영된 행동 특성으로 교수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직무와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교수자의 교육 역량 강화는 전통적으로 교육학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과 같은 맥락이며 최근에는 교수자의 교육전문성 개발과 더불어 교육장면에서의 성찰적 사고와 성찰적 훈련 및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16,17]. 이와 같이 교수자의 심리적 특성 중 성찰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교수자의 성찰능력이 교육 전문성에 미치는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웰에이징 교수자는 전생애 발달 관점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삶을 통합하고 조화롭게 마무리 과정을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따라서 타영역의 교수자에 비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숙된 태도와 성찰 능력이 요구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별, 연령, 교육경력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 자기성찰능력과 교육 전문성을 의미하는 교육역량의 차이를 검증하고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

이다. 연구 결과는 추후 웰에이징 교수자 선발과 역량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웰에이징 교수자의 인성 및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웰에이징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3.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교육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찰지능이 교수자의 교육역량 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 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학, 상담심리학, 인문학분야의 웰에이징 교육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업체 한국갤럽을 통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6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연구 목적과 내용 공지 후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 참여에 사전 동의한 총 393명이 최종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전체 온라인 설문 응답 중 성실히 작성한 3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기성찰지능 검사 도구(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본 연구에서 교수자의 자기성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채운, 오미경[1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검사 도구(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를 사용하였다[18]. 자기성찰지능 검사의 하위영역별 구성은 자기이해(10문항), 자기설계(8문항),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12문항), 자기반성(6문항) 4개의 하위 요인이며 전체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기성찰지능 검사에 사용된 평정법(rating scale method)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검사다. 안채운, 오미경[18]이 보고한 자기성찰지능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43$ 으로 측정도구로서 매우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8$ 로 나타났다.

2.2.2 교수자 교육 역량 척도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역량을 측정하기 우리나라 교원 역량 진단을 위해 개발된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Ⅳ 보고서 중 '교원역량 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19]. 기존의 척도는 교원역량을 진단하는 4개 항목의 총 6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필요한 '교수역량' 항목에 해당하는 15개 문항만 채택하였다. '교수역량' 항목의 하위 변인은 교과전문역량 5문항, 수업역량 5문항, 학습지원역량 5문항으로 3개 요인이다. 이들 문항에 대해 교수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교육역량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2$ 로 확인되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전문성과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393명에 대한 자료를 SPSS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교육역량에 대한 성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찰지능과 교육역량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는 셰페의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육경력에 따른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전문성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하였다. 또한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전문성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지능의 하위 변인이 교육역량 전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성 280명(71.2%), 남성 113명(28.8%)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분포는 40대에서 50대 215명(54.7%), 40대 미만 91명(23.2%), 60대 이상은 87명(22.1%) 순이었다.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문학사 21명(5.3%), 학사 84명(21.4%), 석사 87명(22.1%), 박사 201명(51.1%)으로 집계되었고 최종학위 비율이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순으로 연구참여자의 50% 이상이 박사졸업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자의 웰에이징 현장에서의 교육경력은 12년 미만 235명(59.8%), 12년 이상 138명(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393)

Individual variable	N	%
Gender		
Male	113	28.8
Female	280	71.2
Age		
Less than 40 years old(20~39)	91	23.2
40~50's(40~59)	215	54.7
Over 60(60~)	87	22.1
Education		
Professional bachelor's degree	21	5.3
Bachelor's degree	84	21.4
Master's degree	87	22.1
Doctoral degree	201	51.1
Educational experience*		
Less than 12 years	235	59.8
More than 12 years	138	35.1

*20 missing values in educational experience were excluded from all cases.

3.2 성별에 따른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 차이검증

웰에이징 전문 교수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에 차이점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남, 여 두 집단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2. Verification of group differences in instructors'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competency scores by gender

	Sex	N	Mean	S.D.	t
Intrapersonal intelligence					
Total	Male	113	3.98	0.45	-721
	Female	280	4.02	0.48	
Self-understanding	Male	113	4.02	0.55	-1.329
	Female	280	4.11	0.61	
Self-planning	Male	113	4.01	0.56	-.015
	Female	280	4.01	0.68	
Self-control & utilizing	Male	113	3.86	0.56	-.037
	Female	280	3.86	0.55	
Self-reflection	Male	113	4.04	0.5	-1.042
	Female	280	4.10	0.54	
Educational competency					
Total	Male	113	3.17	0.37	-.498
	Female	280	3.19	0.4	
Curriculum	Male	113	3.17	0.45	-.498
	Female	280	3.19	0.48	
Teaching competency	Male	113	3.19	0.39	-.299
	Female	280	3.20	0.43	
Learning Support	Male	113	3.15	0.38	-.538
	Female	280	3.17	0.44	

3.3 연령에 따른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의 차이 분석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을 40대 미만, 40-50대, 60대 이상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세 집단간 평균비교 분석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는 셰페의 사후 효과검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하였다<Table 3>.

40대 미만, 40-50대, 60대 이상 세 집단간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수업역량, 학습지원을 제외한 자기성찰지능전체($F=4.313, p<.05$), 자기이해($F=4.180, p<.05$), 자기설계($F=4.278, p<.05$), 자기반성($F=4.454, p<.05$), 교육역량전체($F=3.365, p<.05$), 교육과정($F=4.177, p<.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에 대해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자기성찰지능 전체의 경우 40대 미만의 자기성찰지능 평균은 40-50대 및 60대 이상의 평균보다 낮았다. 40-50대의 자기성찰지능

Table 3. Differences in main variable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competency by age

		Age	N	Mean	S.D.	F	scheffe
Intrapersonal intelligence	Total	40<(a)	91	3.89	0.48	4.313*	a<b,c
		40~50's(b)	215	4.06	0.47		b>a,c
		60+(c)	87	4.02	0.45		c>a, c<b
	Self-understanding	40<(a)	91	3.95	0.67	4.180*	a<b,c
		40~50's(b)	215	4.16	0.58		b>a,c
		60+(c)	87	4.06	0.52		c>a, c<b
	Self-planning	40<(a)	91	3.85	0.66	4.278*	a<b,c
		40~50's(b)	215	4.04	0.66		b>a,b<c
		60+(c)	87	4.12	0.57		c>a,b
	Self-control & utilizing	40<(a)	91	3.79	0.55	1.050	-
		40~50's(b)	215	3.89	0.56		-
		60+(c)	87	3.85	0.55		-
	Self-reflection	40<(a)	91	3.96	0.56	4.454*	a<b,c
		40~50's(b)	215	4.15	0.53		b>a,c
		60+(c)	87	4.04	0.45		c>a,c<b
Educational competency	Total	40<(a)	91	3.10	0.45	3.365*	a<b,c
		40~50's(b)	215	3.22	0.38		b>a,c
		60+(c)	87	3.18	0.34		c>a, c<b
	Curriculum	40<(a)	91	3.06	0.55	4.177*	a<b,c
		40~50's(b)	215	3.23	0.45		b>a,c
		60+(c)	87	3.21	0.42		c>a, c<b
	Teaching competency	40<(a)	91	3.13	0.46	2.482	-
		40~50's(b)	215	3.24	0.41		-
		60+(c)	87	3.18	0.37		-
	Learning Support	40<(a)	91	3.10	0.48	1.998	-
		40~50's(b)	215	3.20	0.42		-
		60+(c)	87	3.14	0.35		-

* $p<.05$, ** $p<.01$, *** $p<.001$, Post-hoc analysis: a<b

평균은 40대 미만과 60대 이상 보다 높았고, 60대 이상의 자기성찰지능은 40대 미만보다는 높았고 40-50대 보다는 낮았다. 연령에 따른 자기이해 결과는 40대 미만, 40-50대, 60대 이상 세 집단 모두 자기성찰지능전체 사후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설계는 40대 미만의 평균은 40-50대와 60대 이상의 집단 평균보다 낮았고, 40-50대의 평균점수는 40대 미만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평균점수 보다는 낮았다. 60대 이상은 자기설계의 평균점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기반성의 경우 40대 미만의 평균은 40-50대 및 60대 이상의 평균보다 낮았고,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기반성 평균점수가 높았다. 60대 이상의 자기반성 점수는 40대 미만보다는 높았으며 40-50대 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웰에이징 교수자 교육역량전체 점수의 경우, 40대 미만의 평균은 40-50대 및 60대 이상의 평균보다 낮았고

40-50대의 교육역량평균점수는 40대 미만과 60대 이상 보다 높았다. 60대 이상의 교육역량 평균 점수는 40대 미만보다는 높고 40-50대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교육역량 하위 변인인 교육과정의 평균 점수 차이는 교육역량전체 점수의 결과와 같았다.

3.4 교육경력에 따른 자기성찰지능 수준과 교육역량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의 교육경력 12년 산출 근거는 국내 교육전문가 선별기준을 참고하였다[20].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경력에 따라 자기성찰지능 수준과 교육역량의 주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자기성찰지능은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집단(M=4.10)이 12년 미만의 집단(M=3.9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설계의 경우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집단 (M=4.11)

Table 4. Ver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 the intrapersonal intelligence of well-aging instructors and educational competence scores by educational experience

		Educational experience	N	Mean	S.D.	t
Intrapersonal intelligence	Total	Less than 12 years	235	3.96	0.46	-2.611*
		More than 12 years	138	4.10	0.50	
	Self-understanding	Less than 12 years	235	4.05	0.58	-1.407
		More than 12 years	138	4.14	0.62	
	Self-planning	Less than 12 years	235	3.95	0.62	-2.330*
		More than 12 years	138	4.11	0.70	
	Self-control & utilizing	Less than 12 years	235	3.81	0.55	-2.275*
		More than 12 years	138	3.94	0.57	
	Self-reflection	Less than 12 years	235	4.04	0.52	-2.535*
		More than 12 years	138	4.18	0.55	
Educational competency	Total	Less than 12 years	235	3.15	0.41	-2.014*
		More than 12 years	138	3.24	0.37	
	Curriculum	Less than 12 years	235	3.15	0.47	-2.206*
		More than 12 years	138	3.26	0.45	
	Teaching competency	Less than 12 years	235	3.17	0.43	-1.539
		More than 12 years	138	3.24	0.40	
	Learning support	Less than 12 years	235	3.14	0.44	-1.652
		More than 12 years	138	3.21	0.40	

* $p < 0.5$, ** $p < .01$, *** $p < .001$ *20 missing values in educational experience were excluded from all cases.

이 12년 미만의 집단(M=3.95)보다 높았다.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집단 (M=3.94)이 12년 미만의 집단(M=3.81)보다 높았다. 자기반성은 교육경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고, 경력이 높은 집단(M=4.18)이 경력에 낮은 집단 (M=4.04)에 비해 높았다. 교육역량은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집단 (M=3.24)이 미만의 집단(M=3.15) 보다 높았다. 교육과정 또한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

였으며, 웰에이징 교육경력 12년 이상의 집단(M=3.26) 이 12년 미만의 집단(M=3.15)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자기이해, 수업역량, 학습지원에서는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5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3.5.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 전체와 하위 변인인 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반성은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Intrapersonal intelligence Total	1								
Self-understanding	.840**	1							
Self-planning	.812**	.591**	1						
Self-control & utilizing	.831**	.596**	.540**	1					
Self-reflection	.782**	.545**	.458**	.605**	1				
Educational competency Total	.544**	.397**	.500**	.453**	.419**	1			
Curriculum	.519**	.382**	.500**	.398**	.405**	.826**	1		
Teaching competency	.488**	.360**	.434**	.424**	.371**	.948**	.619**	1	
Learning support	.454**	.323**	.406**	.399**	.351**	.930**	.575**	.964**	1

** $p < .01$

Table 6. Effects of self-understanding, self-planning, self-control & utilizing, and self-reflection on overall educational competency (N=39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Educational competency	(Constant)	1.408	.143		9.829***	
	self-understanding	.011	.039	.016	.272	1.950
	self-planning	.196	.033	.325	5.936***	1.692
	self-control & utilizing	.122	.042	.172	2.905**	1.981
	self-reflection	.177	.041	.158	2.847**	1.736

$F=44.150(P<.001)$, $R^2=.313$, $adjR^2=.306$, $D-W=1.934$

* $p<.05$, ** $p<.01$, *** $p<.001$

교육역량의 전체 및 하위역량인 교육과정, 수업역량, 학습지원 간에 최소 $r=.323$, $p<.01$ 에서 최대 $r=.964$, $p<.01$ 의 범위 내에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값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3.5.2 자기성찰지능이 전체 교육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44.150$,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1.3% (수정된 R 제곱은 30.6%)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기이해를 제외한 자기설계($\beta=.325$, $p<.001$),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beta=.172$, $p<.01$), 자기반성($\beta=.158$, $p<.01$) 세 개요인은 교육역량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자기설계($\beta=.325$),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beta=.172$), 자기반성($\beta=.158$)의 순으로 교육역량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웰에이징 교수자를 대상으로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성차, 연령, 교육경력에 따라 각 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증하였고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성차에 따라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는 결과들은 조금씩 상이하다. 교사집단의 교육역량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교육적 자질, 전문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고[21], 자기성찰지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 되어있다[22]. 본 연구 결과는 성차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이선주(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3].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성차 관련 연구의 주요 핵심은 남성교원에 비해 여성교원 비율 높아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24].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교육역량은 성차의 고유성을 반영하며 여성교원과 남성교원이 각각 강점을 발휘 하는 특화된 교육 영역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지도와 심리상담에 강점을 나타내지만 남성교수자는 학습자의 생활지도, 실습, 및 훈육자로서 역할이 부각 된다고 하였다[19].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른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웰에이징 여성 교수자는 사회적 소통 및 상담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며 웰에이징 남성교수자의 경우 웰에이징 실습과 훈련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웰에이징 교수자의 성별 비율의 형평성을 갖춰 성차에 치우치지 않게 다방면의 교육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하며, 성별에 따라 취약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교수자의 연령에 따른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24,25].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 전체점수를 비롯하여 하위변인인 자기이해, 자기반성은 연령에 따라 40~5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안정된 생애주기에 진입한 고령층 교수자의 경우 자기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 변화에 대한 수용과 통제보다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유지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기설계 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자기설계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는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웰에이징 교수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웰에이징 교육의 가치와 실현을 위한 능동적 미래설계 능력이 더욱 탁월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25].

웰에이징 교수자의 연령별 교육역량 전체점수와 하위변인인 교육과정의 유의미한 차이는 40~50대 평균점수가 다른 연령대 보다 높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연령 증가에 따라 60대 전까지는 교육전문성을 의미하는 교육역량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인 교육과정 수행력은 향상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경험하는 시점으로 교육 지식과 경험이 충만해지는 연령대에서는 교육역량 수준이 유지 또는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웰에이징 교수자들은 이 시기를 교육활동의 또 다른 전환점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6].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연령 오름차순에 따라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 발달이 비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경력은 교수자의 심리적 안정성 발달과 더불어 교육역량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6]. 선행연구에서는 Newman과 동료들이 교육경력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였고[27], 교육경력이 11년~20년인 경우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단계인 성숙기(accomplishment)

에 해당 된다고 설명 한다[26,28-31]. 또한 국내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을 현장교육경력 1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 기준에 맞춰 교육경력을 12년으로 구분하였고,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경력을 12년 미만과 이상으로 분리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타당하다[20].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경력을 12년 미만, 12년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변인 전체와 하위 요소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기성찰지능 전체와 하위요소인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반성 그리고 교육역량 전체와 하위변인인 교육과정 활동이 교육경력에 따라 유연해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웰에이징 교수자의 교육경력이 증가할수록 자기성찰지능전체와 교육역량전체는 비례하여 향상되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용할 수 있는 자기이해 능력, 수업장면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전달방법, 교육환경과 관련된 수업역량 및 학습지원은 교육경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 간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과 교육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역량 발달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교육역량이 높을수록 자기성찰지능 수준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화영[3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 전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반성 순서로 교육역량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위 세 요인이 높아질수록 교육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결과는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최상희[25]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진로 분야에서 자기성찰지능이 필요하지만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교수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기성찰지능은 교수자의 교육역량에 영향을 주며 이는 학습자의 교육효과성으로 이어진다. 즉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인지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33,34]. 이러한 결과는 웰에이징 교수자의 자기성찰지능이 교육역량 향상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웰에이징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찰적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성찰지능과 교육전문성을 나타내는 교육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교수자의 다양한 개인적 변인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 결과마다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는 성차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웰에이징 교수자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과 교육전문성을 진단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웰에이징 교수자와 일반 교육장면의 교수자의 심리적, 전문성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J. W. Rowe, R L Kahn,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Vol.237, No.4811, pp.143-149, 1987.
DOI: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ence.3299702>
- [2] J. S. An, Y. S. Chong, Y. J. Jeong, S. G. Seo, Cooney, T.M., "Critical Aspirations from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Koren Journal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24. no.3, pp.35-54, 2011.
- [3] E. Rudnicka, P. Napierała, A. Podfigurna, B. Męczekalski, R. Smolarczyk, & M.Grymowicz,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pproach to healthy ageing", *Maturitas*, Vol.139, pp6-11, 2020.
DOI: <https://doi.org/10.1016/i.maturitas.2020.05.018>
- [4] J. L. Van Zanden, A. Rijpma, M. Malinowski, & M. Mira d'Ercole,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How's Life?, pp.56~98, 2020.
DOI: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20-en
- [5]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186463>
- [6]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pp.89~105,2018.
DOI: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8-en
- [7] Statistics Korea, 2022 Quality of life,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 (accessed March 1, 2023)
- [8] W. K. Kim, J. A. Jeon, "Trends of Research on Older Adult Education in Korea from 2000 to 2011",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Vol.17, No.4, pp.253-263, 2011.
- [9] P.Jarvis(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teaching* (Vol. 272). London: Routledge, 2006, pp.10~32.
- [10] M, Knowles, III. Holton, & R.Swanson,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2012, pp.87~94.
- [11] A. Withnall, *Lifelong learning in long-term care settings*. In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earning*. London: Routledge, 2012, pp.180-187.
- [12] OECD,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Paris: OECD. Publishing, pp.250~312, 2018.
DOI: <https://doi.org/10.1787/20769679>
- [13] H. Gardner, *Multiple Intelligences and Adult Literacy: A Sourcebook for Practitioners*, Harvard Edu, 2007.
- [14] J. H. Koh, H. J. Song, "The Influence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on Posttraumatic Growth :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22, No. 2, pp.245-268, 2015.
- [15] S. H. Jeon, *Teaching competency and needs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teacher's career in high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5-22, 2016.
- [16] S. J. Park, M. J. Kim, "The Analysis on Recognition of Strengthening Teacher's Competency in Teachers o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2. No.3, pp.163-186, 2015.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5.32.3.163>
- [17] T. J. Sergiovanni, & R.J.Starratt, *Supervision: A redefinition.*, NY: McGraw-Hill, 2007.
- [18] C. Y. An, M. K. Oh, "The Development of a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Adults",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Vol.20, No.1, pp.51-78, 2013.
- [19] C. H. Kim, B. Y. Kim, S. B. Moon, J. S. Kim et al, A Study for Development of Korean Teacher Competency Index, final repor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p. 58~120,20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281>
- [20] SEN Korea, Available from: <https://www.sen.go.kr> (accessed Mar. 5, 2023)
- [21] S. I. Yeo, N. G. Choi, "Comparative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Personal Variables.",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38, No.1, pp.15-28, 2014.
DOI: <https://doi.org/10.21796/jse.2014.38.1.15>
- [22] H. J. Kim, Y. K. Lim, "An Analysis of Young Children's Multiple-Intelligences and Self-esteem According to Young Children's Ages, Gender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And Education*, Vol. No.87, pp.233-261, 2014.

- [23] S. J. Lee, *Study on Influence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Experience as Bully and Victim of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p.15-40, 2018.
- [24] Koera Education Statistics System, 2022 Education Report, kess Korea,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index> (accessed Mar. 1, 2023)
- [25] K. J. Lee, "The Meaning of Curriculum and the Teacher's Role Focusing on the Practical Proces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23, No.3 pp. 57-80, 2005.
- [26] S. H. Choe, "The tendency and relationship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kindergarten teacher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Vol.3, No.1, pp.55-71, 2018.
- [27] K. K. Newman, P. R. Burde, & J. H. Applegate, *Helping teachers examine their long-range development*. Washing: ATENC, ERIV, ED, 1980, pp.204-321. DOI: <https://doi.org/10.1080/08878738009554738>
- [28] H. H. Park, "Teacher Career Development through Training Programs based on Developmental Stages: From the perspective of HRD",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26, No.2, pp.1-19, 2005.
- [29] H. J. Cho, K. Y. Y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e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7, No.2, pp.183-207, 2009.
- [30] J. Eros, "The career cycle and the second stage of teaching: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vol.112, No.2, pp.65-70, 2011. DOI: <https://doi.org/10.1080/10632913.2011.546683>
- [31] R. Fessler, & J. Christensen, *The teacher career cycle. The teacher career cycle: Understanding and guiding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p.325, Rodge Publishers, 1992, pp.21-44.
- [32] H. Y. Seu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telligence and professionalism of kindergarten teach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p.32-40, 2006.
- [33] J. N. Baik, *Novice Teacher's Improvement in Science Instruction Through Self Reflec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pp.6-16, 2011.
- [34] E. Y. Lee, *The effect of teachers' reflection for classroom instruction : focus on the cognitive demands of mathematical task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pp.1-21, 2015.

백 청 강(Cheong-Kang Baek)

[정회원]



- 201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상담및교육심리전공)
- 2015년 4월 ~ 현재 :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직무교육과정 외래교수
- 2022년 7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교육심리, 발달심리, 심리측정및평가, 정서지능, 웰에이징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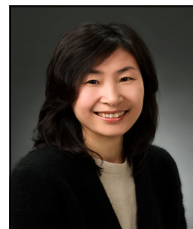
- 2001년 1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구 진 희(Jin-Hee Ku)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컴퓨터 과학교육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공업(컴퓨터)교육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소프트웨어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공학, 빅데이터, 웰에이징